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 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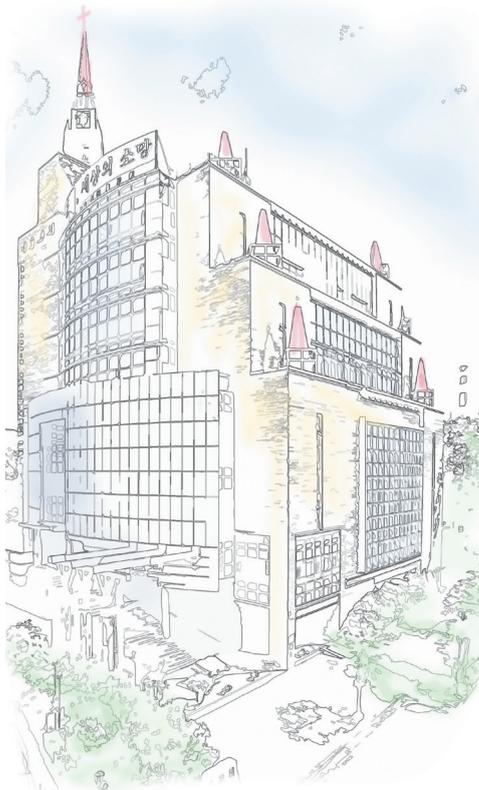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Ⅲ

(요 1:4~5)

이종윤 원로목사



3. 빛의 승리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 12:36).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어두움에 점령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은 어두움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못 뚫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빛은 우리가 가릴 수 있고 어두움으로 피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빛은 절대로 가릴 수 없습니다.

모택동이 1945년 이후 중국땅에서 기독교인을 다 내쫓고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세속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선교사한테 잘 보이려고 노회가 모이면 노회 회의록까지 영어로 썼습니다. 그렇게 아부를 해서 몇 푼 얻어 보려고 교회가 분열되고 권력투쟁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식고, 전도열도 다 없어져서 중국교회가 다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국에 불교는 성행하고, 유교는 목을 들기 시작하고, 도교도 막 성행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점점 사그라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택동을 일으켜 종교 말살정책을 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탄압을 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백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만 전하면 전하는 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가 부흥하여 지금은 중국에 큰 교회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가 나약하고 시들시들하니깐씩 쓸어버리시고, 중국사람 마음에 있는 다른 종교 사상까지 싹 빼어 공허하고 빈 마음 만드시고, 거기에 새롭게 복음의 빛을 비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빛이십니다.

4. 당신도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빛이 아니지만 이제 천천히 빛이 되도록 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앞으로 소금이 되라’고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이미 소금입니다. 요한복음 5:35에 보면 요한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이 세상에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발광체인 그에게서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므로 어두움의 세상들이 우리를 보고

‘여기에 빛이 있구나, 나도 빛을 발견했다’하며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빛을 비취 주고 조명을 해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세상 문학 작품이나 세상의 문화 활동을 통해서 빛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전부가 자연계 시입니다.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간접적인 것 밖에는 못 봅니다. 희미하게 보여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직접 계시를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야 빛을 비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이 된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취 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사 6:5).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허물과 더러운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개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또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기독교인의 절대 덕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등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운동 잘해서 허리가 100% 돌아가도 자기 등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자기의 모습도 볼 수 없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써서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인도할 수 있고 자기 분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빛 되신 예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어느새 자신을 알게 됩니다.

빛 되신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비추어 보아 자신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6월 17일(월)~6월 22일(토) 오전 5시 ~6시 / 강사: 서창원 목사

"영원한 위로(慰勞)"를 주제로 6월 6일(목)부터 시작한 2019 홍해작전(부장 : 최형열 장로) 승전을 위한 행진이 은혜롭게 행군 중이다.

또한 내일 6월 17일(월)부터 2019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강사로는 서창원 목사이며 시간은 오전 5시부터 6시까지이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특별새벽기도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커다란 장애와 시련 앞에서 기도

와 믿음으로 극복한 기적의 역사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아직도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같이 동참하여 홍해 앞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구원을 바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 이번 홍해작전에 참석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윤종현1 서민애 김현영 이주현7·이주영
송인덕·이홍숙 차도훈·남태영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교회 사랑

많은 성도들이 좁은 공간에서 예배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내 청결, 식사 후 뒷정리, 물과 전기 절약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이의사건 다시 승소판결

- 박노철 목사의 이의신청 기각, 원 가처분 결정 인가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4월 11일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박노철 목사의 직무대행자로 강대성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이에 대해 박노철 목사는 부당하다며 대항로펌 화우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지난 6월 11일 위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기존에 내려진 가처분결정을 그대로 인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노철 목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난 해 초 있었던 법원의 박노철 목사에게 대한 서울교회 대표자로서의 임시지위를 인정 한 가처분결정은 이후 안식년제 규정 거부라는 새로운 사유로 법원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가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또 박노철 목사가 적법한 대리당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이태종 목사 역시 적법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데다 서울교회는 종교활동 이외에 비법인사단으로서 단체 유지를 위한 기본적·통상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위 교회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고 나아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임시당회장 등)를 선임하는 절차에 있어 소집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관여함으로써 단체 내부에서 서울교회를 정상화하는데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있어 법률 전문가가 적합하다며 강대성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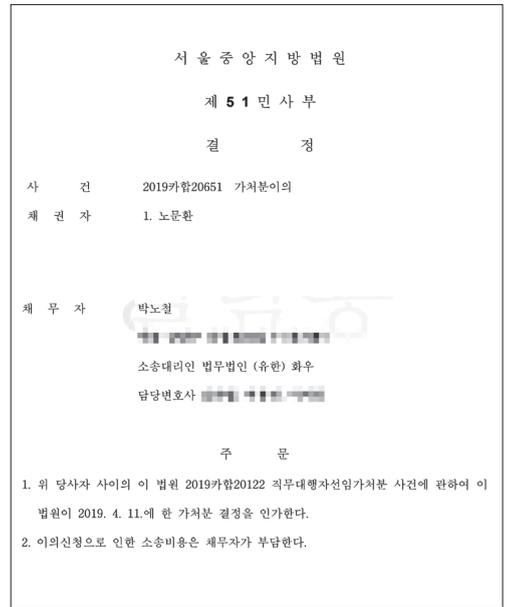
이에 대하여 박노철 목사는 이 가처분결정은 종교단체인 교회의 본질적 특수성과 현실을 도외시 하고 대다수 교인들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

당한 결정이라며 당회장의 종교적 역할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조인이 직무대행자가 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 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정상적인 직무대행이 불가능하고 또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므로 교회의 자율규범인 총회 헌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데 법조인이 교회의 직무대행자가 되는 것은 총회헌법에 명백히 반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이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였다고 하나 결코 중립적인 결정이라 할 수 없고,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정반대로 그 선임 및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교회의 혼란과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이 명백하다며, 굳이 직무대행자가 필요하다면 이태종 목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박노철 목사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다도 기존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정당하다며 달리 별도의 이유도 붙이지 않은 채 기존 가처분 결정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박노철 목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장로교 26개 교단장 명의로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이 반헌법적이라며 심지어 직무대행자가 인도하는 당회는 배교적 불법당회라는 성명서가 발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강남노회가 박노철 목사의 직무정지 이후 갑자기 불법적인 대리당회장 이태종 목사를 파송하여 서울교회 법적분쟁을 더 격화시키지 않았다면 굳이 법원까지 나서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도 없었다. 또한 다수 당회원들이 법원에 추천한 목사를 반대하지 않았다면 굳이 법원이 목사를 배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게 의뢰하여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먼저 이 몇몇 교단장들이 왜 법원으로부터 목사도 아닌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는지를 잠시라도 살펴보았다면 차마 이러한 부끄러운 성명서를 발표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이런 변호사 직무대행자 선임의 빌미와 단초를 제공한 서울강남노회와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교단총회가 스스로 먼저 대오각성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한번 그 적법성이 확인된 직무대행자 강대성 변호사를 통해 정상적인 당회가 계속 이루어져 서울교회 회복에 큰 견인차가 되기를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김현업 집사 (2019 흥해작전 기획부)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구나!” 교회 출석에 대한 아버님의 극렬한 부딪힘 가운데서도, 시마다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를 앞세우시며 예배의 모범을 보이시던 어머니와 권사님들께서 어리고 철없는 저에게 늘 전해주시던 축복의 메시지였고, 이 위로의 말 한마디는 50대 중년이 된 지금에도 마음속 깊이 간직된 나만의 소중한 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짐, 축복은 힘들 때마다 되뇌이고 다짐하는 지표가 되고 저를 살게 하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지.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서울교회에서 27년간의 흥해작전도 제게는 늘 감동과 위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의 어려움과 기도제목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3여 년의 목회자를 통한 시련, 물리적인 압박, 경찰서·법원 출입, 그리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구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매년 흥해작전을 맞는 저의 시각은 “서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앞에 처

한 장벽을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음을 수십 년 동안 배우고 체험하여 온 하나님의 훈련된 군사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번 흥해작전에서 서울교회의 비전을 밝히 보고 또 다른 위로의 메시지로 전달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계대를 잇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에 동참하는 대견한 모습입니다. 흥해작전을 시작할 즈음, 어느 학생이 제게 부탁을 하더군요. “제가 사백예배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이 한마디는 제게 감동과 함께 큰 위로로 전달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서울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계시는구나.”

아직은 미약하고 힘이 없는 서울교회이지만, 아직은 어리고 더 자라야하는 어린이, 청소년이지만 서울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결코 두렵지 않고 겁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심으시고,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에 저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위로의 잔치, 이미 벌어진 흥해작전에 내일부터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이에 저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위로의 잔치, 이미 벌어진 흥해작전에 내일부터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안식년제 규정 관련 재재심건 판결통보

-무효선언 했던 102회기 재심판결 파기, 최차순 등의 무효확인청구 기각(각하)-

총회재판국은 지난 6월 4일 박노철 목사 측 최차순 장로 등이 제기한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무효확인청구 관련 재재심 사건에서 안식년제 규정이 무효라고 선언하였던 102회기 재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판하면서 원고(최차순 장로 등 4명)의 무효확인청구를 총회헌법에 규정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각하)하였다.

즉, 최초 심리를 한 서울강남노회 판결에서 문제삼은 제소기간 5년 문제보다 오히려 더 앞선 문제 즉, 지교회의 안식년규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나 결의가 아니어서 그 무효주장은 재판국 소송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결국 박노철 목사의 2017년 안식년 해당년도를 바로 앞둔 2016년 7월경, 안식년과 재시무투표를 거부할 명분과 시간을 벌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이 3년 가까운 소송전 끝에 소송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법리판단으로 늦게나마 종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당초 소송대상조차 되지 않는 것을 소송까지 끌고 간 것부터가 잘못임이 확인되었고, 또 재판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비되기는 하였지만 안식년제 규정이 헌법위배로 무효라고 선언했던 102회기 불법재심판결이 파기된 것과 교단재판국에 전례가 별로 없는 재재심을 기적처럼 이끌어 내어 서울교회 관련 재재심 세건 중 두건의 결론을 뒤바꾸었다는 데 나름대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도착한 재재심 판결문을 보면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라며 형식적인 요건불비를 이유로 판결주문에서 안식년제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

들의 청구를 아예 기각(각하)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판결이유에는 거꾸로 안식년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실제적인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소송법리상 형식요건이 불비되면 아예 실제판단에 들어갈 수 없고 또 판결의 정식 법적효력은 판결주문에 기재된 내용에만 미치는 것인데도 굳이 판결이유에라도 이와 같이 법리에 맞지 않은 기재로 하여 준 것은 재판국으로서 애써 소송법리적 판단원칙을 고수하려 하면서도 그동안 철갑통목회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목사들의 재신임제도 반대 기류와 여론을 과감히 탈피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얼마 전 다시 나온 헌법해석을 재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따라서 서울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한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안식년제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서울교회 내에서는 자치규범으로서 유효하며 특히 박노철 목사는 목회자의 윤리, 금반언, 신의칙 등에 의해 위 규정을 준수하고 이후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라는 기존의 101회기 헌법해석 역시 변경되지 않아 계속 유효하므로 서울교회는 특별히 영향 받을 일은 없다.

더욱이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안식년관련 1, 2심 본안 판결들도 위와 같은 기존의 헌법해석이 재판과정에서 박노철 목사 측에 의하여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식년제 규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한 사건이므로 이러한 헌법해석 자료 역시 대법원에 영향을 끼칠 우려도 전혀 없다.

박노철 목사 측 어느 성도는 판결주문에서는 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판 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전 재재심 제102-21호

사 건 명 :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노론관 장로 외 16인이 제출한 “재재심청구서”(예총재판국 제102-11호)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최차순 장로가 서울교회 당회장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확인의 소) (사건번호 : 제101-26호) 재심사건) 판결에 대한 재재심청구서

제3차 소송참가인(예재심청구인) :
1. 노론관 성별 : 남자 직분 : 장로

원고(피재재심청구인) : 1. 최차순 성별 : 남 직분 : 장로
2. 최차순 성별 : 남 직분 : 장로
3. 이남환 성별 : 남 직분 : 장로
4. 김영환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판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록 패소하였지만 판결이유에서는 무효판단을 받아 사실상 자기들이 승소하였던 102회기 재심판결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나 판결효력이 똑같다면 굳이 재재심까지 열여 박노철 목사 측이 승소했던 102회기 재심판결을 파기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이제 계속되는 흥해작전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더 힘을 모아 교회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조속히 대법원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릴 때이다.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교회 내의 의료상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의료선교부 부장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 하셔서 시간과 장소, 진료 일정을 공지해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예상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더위에 따른 각종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의료 상담을 통하여 건강 관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위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1층 엘리베이터 옆, 상담시간은 매 주일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까지입니다.



- 6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표 -

- 6월 2일 : 노제현(안과), 김동준(내과)
- 6월 9일 : 노선균(흉부외과), 정현구(치과)
- 6월 16일 : 김봉배(통증), 김관섭(영상의학)
- 6월 23일 :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검)
- 6월 30일 : 최용준(한방), 이경진(성형외과)

2019 성경암송대회

범위: 마 5-7장(산상수훈)
 예선: 9월 29일(주일)
 본선: 10월 12일(토)

2019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 일시: 9. 29(주)
 - * 암송범위: 마 5-7장(산상수훈)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 일시: 10. 12(토) 오후 1시

전 성도 성경읽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결심하셨던 「전 성도 성경읽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시작 못하신 성도님, 시작하셨다가 중도 포기하신 성도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 성도 성경읽기」를 하실 성도님들을 위해 일년통독 성경읽기표가 웨스트민스터 홀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독, 2독 마치시는대로 교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읽기표는 매 주일 순례자에 기재됩니다. 온 성도가 참여하여 교회와 성도가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6월17일	월	시 32-35		고전 12-16	
6월18일	화	시 36-39		고후 1-13	
6월19일	수	시 40-44		갈 1-6	
6월20일	목	시 45-50		엡 1-6	
6월21일	금	시 51-56		빌 1-4, 골 1-4	
6월22일	토	시 57-62		살전 1-5, 살후 1-3	
6월23일	주일	시 63-68		딤후 1-6, 딤후 1-4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 동 정**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제육볶음 오이무침
 - 돼지고기 제공 : 이관규 장로·이순영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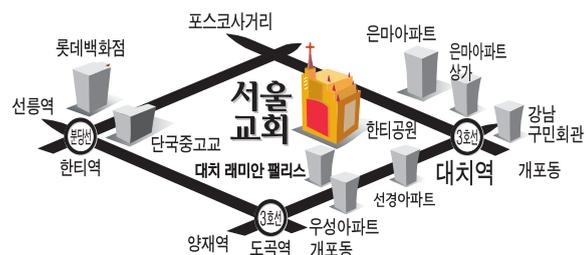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6월 17일(월)~22일(토) 새벽 5~6시에 진행되는 2019 흥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강사: 서창원 목사)를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앞에 놓인 흥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3.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어서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